

Vol.11/No.4
2017 WINTER

무예연구 : 한국무예학회

JOURNAL OF MARTIAL ARTS : KOREA SOCIETY OF MARTIAL ARTS



태권도 윤리, 스포츠의학 그리고 도핑

Taekwondo Ethic, Sports Medicine and Doping

김학덕 Kim, Hak-Duk



한국무예학회

태권도 윤리, 스포츠의학과 그리고 도핑

김학덕*(동의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 스포츠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스포츠의학과 도핑의 시대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몸에 관한 스포츠윤리의 해석적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논의함으로써 시대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스포츠의학과 도핑에 대해서 태권도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태권도 윤리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태권도를 행하는 선수들의 몸을 통한 자발적인 실행과 의미전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포츠의 불확실성은 그 깊이를 더해 비윤리적이고 비규범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다. 결국, 경기자체 혹은 물리학적으로 또는 규칙이 관련됨에 있어서가 아니라, 태권도를 행하는 태도, 마음가짐, 준비자세, 다른 참여자들의 목적과 관련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문제시 되고 있는 스포츠 도핑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인간이 갈망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부정적인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태권도 윤리, 스포츠의학, 도핑, 몸

* bloosky@deu.ac.kr

I. 서론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사상의 발전사이며, 변천사이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철학사와 정신사의 맥락을 이해하는 일은 곧 인류의 역사를 읽는 일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연구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해의 지평은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망의 발달 등으로 한층 더 역동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스포츠 대중은 현실의 광장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며 여론을 모았지만 이제는 넉넉한 공간을 드러낸 존재들이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들락거리며 여론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연결되었지만 순식간에 이합집산하는 개인들이 창조해내는 놀라운 변화는 통제도, 예측도 불가능한 스포츠에 매료되는 이유로 다이내믹스(dynamics)한 변질을 유도하게 되었다.

스포츠 윤리는 이런 다양한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이론체계이다. 스포츠 사회현장에서 발생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보편적 배려에서 거대한 경기순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세상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스포츠에서 고통과 부상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어왔지만 1980년 초반 이후 새로운 조사들이 증가했으며, 스포츠 사회이론의 초점은 꾸준히 고통과 부상에 대한 구체화된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Kotarba는 그의 연구에서 스포츠 문화와 경기 중에 발생하는 고통에 대한 개념을 조사했고, 어떻게 고통과 부상의 충격들이 개인에게 연관이 되는지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스포츠에서 고통과 부상이 가지는 선수와 사회문화와의 충돌에 대한 조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Nixon, 1989, 1993; Roderick et al. 2000; Walk, 1997; Young, 1993). 이러한 조사의 결과 위험에 대한 태도변화는 어떤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대부분 개인적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위험 요소를 다루는 것은 보디빌딩, 태권도와 같은 종목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

될 수 있다(Monaghan, 2001). 보디빌딩에 대한 Monaghan의 민속지학적 연구에 따르면 그는 교육받지 못한 위험한 사업처럼 보이는 것은 보디빌더에게 일반적인 연습의 부분일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위험이 수반되는 보디빌딩, 활동적인(위험요소가 포함된) 삶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격투종목 선수들) 사이에서의 위험 요소와 비슷하다고 했으며 무언가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했다(Monaghan, 2001).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높은 강도의 훈련이 포함된 선수생활 즉 약물을 투여하는 보디빌딩 종목과 자연 상태의 음식만 섭취하는 보디빌딩 종목을 선택하는 선수들, 간단히 말해 태권도 겨루기 종목과 같은 위험한 요소(높은 강도의 훈련, 입식타격식 실전겨루기)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의한(재활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기력에 미치는 약물, 부상이 있지만 고통을 감추고 승리를 추구) 고강도 훈련을 하는 것은 부상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가자들이 위험에 대해 사회화되느냐이다.

본 연구자는 태권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설명되는 사회 규칙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태권도선수들은 경기에서 위험과 고통과 부상을 암암리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사회화와 제도적인 합리화의 과정 그리고 일반적인 문화적인 가치, 구조적인 권유와 역할 구속에 의해 노출된 스포츠의 긍정적 의미가 퇴색되는 명확한 이유를 확인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스포츠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스포츠의학과 도핑의 시대적 문제점을 몸에 관한 스포츠윤리의 해석적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논의함으로써 시대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스포츠의학과 도핑에 대해서 태권도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스포츠 윤리의 형성과 의미

1. 스포츠 윤리의 형성

철학자와 신학자에 의해 무시되어온 몸의 움직임은 오늘날 스포츠현장 속에서도 그것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지만 항상 확실한 윤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혼돈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윤리의 한 목록으로써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위해 많은 주장을 해왔다.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Camus(1910~1960)는 ‘그가 윤리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스포츠에서 모두 체득해 온 것이다’ 라고 Keating(1964)의 ‘도덕적 범주로서의 스포츠맨십’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전 미국대통령인 Hoover는 ‘다음의 종교는 최근 미국에서 착함 즉, 선(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써 스포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Leahy, 1951). Columbia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Commager(1944)는 논쟁에서, ‘스포츠맨십 즉, 스포츠 윤리는 운동하는 장소에 존재한다. 그 장소는 미국학생들이 용기와 명예의 덕목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말하였다. Lyman(1947)은 ‘사랑의 원리는 너무 강한 규율이라 그것에 의해서는 살수 없다’ 그러나 스포츠 윤리는 진보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스포츠 윤리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인류스포츠의 근원지로부터 스포츠맨십과 함께 스포츠의 근본요소로 볼 수 있는 페어플레이가 있다. 페어플레이는 의로움, 상호 협력적이며 올바른 행동의 경쟁이다. 경기 시 발생하는 경쟁은 저속함, 속임수, 거짓의 잘못된 구실, 상대를 배척하는 잘못된 복수심의 감정을 넘어서 정신을 말한다. 그리고 페어플레이는 오직 자신의 국가를 위한 폐쇄적이고 비타협적인 국수주의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스포츠나 체육학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구단이나 협회의 여러 단체들처럼 팀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윤리의

영역으로서 스포츠맨십의 주장이 어느 정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포츠윤리이론의 전문가들인 스포츠철학자가 스포츠와 운동에 몰두하는 인간 행위의 기초적인 이론적 영역의 적합성을 찾으려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들의 상호관련적인 문제들은 오늘날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스포츠 상황에서 혼란의 원인은 필연적으로 스포츠 윤리에 대한 태권도선수들의 대화에서 생겨나는 스포츠 상황의 대립으로, 즉 경쟁은 이 혼란에서 오는 일반적인 결과들을 수반한다. 둘째,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의미, 또는 특별한 고려를 한 상태의 태권도 경기에 대한 적당한 행동과 행위는 지배자 집단이나 주축이 되는 관련 도덕집단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성과 목적성이 태권도 경기에 적용됨으로써 스포츠 윤리의 유도적인 언어로 스포츠맨십이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스포츠의 도덕적인 토대 혹은 윤리적 핵심의 장점들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결국, 핵심적 장점들은 몸의 움직임으로 훌륭하게 구현되는 행동과 행위를 특성화 시킨다(김학덕, 2005).

1926년에 국제스포츠맨십협회(National Sportsmanship Brotherhood)는 삶의 모든 측면을 총괄하는 어린이들의 놀이에서부터 국가 간의 경기에 이르기까지 스포츠맨십의 복음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문학 학술집(Literary Digest, 1926)에 기재된 스포츠맨십협회(Sportsmanship Brotherhood)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써 그 핵심은 다음의 8가지다.

1. 규칙을 지켜라.
2. 동료와 신의를 지켜라.
3. 스스로에게 맞춰라.
4. 감정을 조절하라.
5. 잔인성에서 자유로워져서 경기하라.
6. 승리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라.
7. 패배에 단호한 마음을 가져라.

8.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과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라.

이러한 핵심을 따르는 국제스포츠맨십협회는 ‘이기거나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경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전설이다. 태권도경기장에서나 테니스코트에서나 골프코트에서나 책상에서나 기계가 작동되거나 멈춰질 때도 ‘게임을 한다는 것’ 은 신뢰, 용기, 엄격한 참을성, 자기통제, 자기성찰, 사치에 대한 경멸감, 다른 사람의 의견존중, 예절에 대한 고려 그리고 모든 공평성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사회적 복지의 가장 큰 희망을 찾는다. 국제스포츠맨십협회는 상대적으로 이런 감성적 외연의 형태와 스포츠맨십을 다루는데 있어서 도덕적 과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정당한 스포츠맨십과 태권도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의 행위로써 스포츠맨십이 명목상으로 정의될 때, 더 의미 있는 것이 된 것이다. 그들은 경기자에게 기대하는 행위의 종류로써 태권도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특성화 하려고 할 것이다. 태권도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는 불평이나 기분 좋은 승리 없이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평함, 관대함, 예절로써 경쟁자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김학덕, 2005).

2. 스포츠 윤리의 의미

스포츠 윤리의 의미는 단지 특별한 행위의 코드를 구성하는 도덕적 특질의 집합이 아니다. 스포츠 윤리는 행위, 마음가짐, 단지 다른 점에서 합법적 코드가 될 법한 것을 해석하는 태도다. 그러나 일반적인 윤리의 특징은 그 코드가 거의 사고를 독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뢰, 용기, 완고한 참을성, 자기통제, 자존심, 사치에 대한 경멸, 다른 이의 의견과 권리에 대한 고려, 예절, 공평성, 관대함, 고양된 명예감, 협동, 인정, 이러한 목록은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 모두가 기초적이거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경기자는 아마도 규칙을 준수하고 팀워크를 이루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용기 있

고, 인간적이며 그리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기자로서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 없이 침착함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Keating, 1964).

태권도의 최고의 목적은 시합에서 이기는 것도, 물고기를 잡는 것도, 동물을 죽이는 것도 아니다. 다만 태권도의 목적을 따르려고 시도할 때 오늘의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친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제 용기, 자기통제, 협동, 그리고 명예감 등과 같은 그런 칭찬할 만한 도덕의 집성체가 그들 스스로 의미적 존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훌륭한 경기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스포츠의 윤리적 의미에서 태권도를 행하는 사람들의 관대함과 관용은 태권도인 다운 것으로써 묘사되는 행위와 태도에 본질적인 재료가 된다. 따라서 경기자들은 태권도를 통해서 유일한 사회적 결속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태권도의 목적이 참여자들의 즉각적인 즐거움이 ‘다른 많은 이기적 목적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준거적 틀을 형성한다(Klaus, 2001).

하지만 어떻게 태권도를 행하는 행위의 즐거운 성질이 최대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이한 견해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일반화된 윤리적 규범과 지배적인 순수 스포츠의 본질적 코드에 의해 설명되지만 본질적으로 법적인 코드와는 다르다.

경쟁은 어느 정도 두 부류 중 한 부류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권도 행위의 목적은 참가자들의 상호즐거움이 되는, 심지어 한 부류에 의해서 배타적인 소유조건으로 이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의 거짓된 경쟁적 상황은 서로를 속여야하는 모험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위장되고 있다. 태권도의 경쟁이란 말이 조심스럽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동안 스포츠맨십의 코드는 근본적으로 협력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되며, 그 코드 또한 그것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우리가 태권도에서 태권도 경기로 태권도를 옮겨왔을 때,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협력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다. Hayek(1944)는 ‘경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태권도선수에게 있어서 훌륭한 패배자가 된다는 것은 상대의 면전에서 자기 통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즐거운 행위는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 경쟁자가 중요한 시합에서 패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심경이 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태권도 선수는 뛰어난 침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마추어 혹은 프로이건 간에 전문태권도선수들에게는 복잡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승리, 큰 업적 그리고 평가는 전문태권도선수들에게는 재정적 성공의 근본이다. 너무 많은 패배는 등용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전문태권도선수들이 편견을 가지고 경쟁자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며, 상대를 생계 찬탈의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자와 매일 경기하며 종종 친근하게 지내는 것은 반대로 큰 흥분과 감정을 요구하게 된다. 반면에 여전히 공평함과 고려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존경할 만한 자기 통제가 있다는 증거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 속임수, 흠잡음, 이러한 것은 모두 스포츠의 모든 형식에 있어서 너무 일반적인 사실이 되었다. 또한 세속적인 신념에서 오는 현재의 움직임은 아마도 골프나 테니스의 인기를 올리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고 야구, 복싱, 태권도 그리고 많은 일반적인 스포츠로서 명예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에게 그들의 근원을 쫓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태권도경기처럼 행동의 주된 결정자 그리고 플레이어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경쟁자의 목적이지만 게임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태권도경기에서 내 자신이 경기를 관람할 때의 판단관점의 코드와 심판에 의해서 보여지는 판단관점의 코드, 그리고 다른 태권도선수들이 보는 판단관점의 코드를 대조시켜보면 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난다. 이것은 그 자체로써 스포츠가 가지는 개인적인 특징으로 고려되며, 필연적으로 스포츠의 윤리적 코드에 귀착되는 것을 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스포츠 윤리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포츠를 행하는 태권도선수들의 몸을 통한 자발적인 실행과 의미전달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스포츠맨십의 규칙은 자유와 아주 오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아마도 두 개념의 상충점을 찾아 합당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의 불확실성은 그 깊이를 더해 비윤리적이고 비규범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다.

결국, 경기자체 혹은 물리학적으로 또는 규칙이 관련됨에 있어서가 아니라, 태권도를 행하는 태도, 마음가짐, 준비자세, 다른 참여자들의 목적과 관련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아마도 언제나 어떤 휴식 또는 슬픔으로부터 기분전환, 삶의 심각한 측면으로부터 탈출을 갈망한다. 물론 이것은 사치스러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제 시 되고 있는 스포츠 도핑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인간이 갈망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부정적인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스포츠의학의 발달과정과 도핑

1. 스포츠의학의 발달과정

스포츠의학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Berryman, 1992; Ryan, 1989). 현대스포츠 의학의 기초가 되는 씨앗은 19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 뿌려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스포츠의학은 아마도 의학원리의 체계적 적용과 전문단체형태인 과학적인 조언 그리고 저널의 스포츠 행위연구에 관한 과학으로써 정의되었다(Waddington, 1996).

‘스포츠 의학’이란 단어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혁명이다. Rayn(1989)은 1928년에 스포츠 의학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스위스 St Moritz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 참석한 의사들은 스포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스포츠 의학이란 타이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의사들이 운동선수들을 위해 제공하는 조사나 치료가 경

기력에 도움을 줌으로써 유능한 운동선수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현상은 외과 의사들이 회의를 개최하게 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의학 팀을 갖는다는 사실은 스포츠 의학이 언젠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최초 국제적 협회(Federation Internationale de Medicine Sportive(FIMS))가 설립되었다. 1933년에 등장한 Dr F. Herxheimer에 의해서 발간된 독일출판물 Grundriss에서 그 타이틀에 그 언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영어로 사용된 책 중 J.G.P윌리엄스의 1962년 첫 작품인 Sports Medicine(Ryan, 1989)에서보다 30년 앞선다.

그러나, 형식적인 구조가 현대 스포츠 의학의 조직을 위해 설립될 수 있기 전에 스포츠 참가자들의 훈련과 관련된 그들의 다이어트와 일반적인 이해를 포함한 고려는 의학과학에 지향점을 제공해 준다. 초기 관찰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사람들은 스포츠적 성공이후에 오는 성취할 목표으로써 수행을 강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히 어떻게 인간의 몸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탐구만 진행되었다(Hoberman, 1992). 스포츠 의학의 초기 역사의 조사는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였다. 대부분의 다른 발전에서 그렇듯이, 스포츠 의학의 발달이 단순한 발전적 연속체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직시해야만 한다. 이 논의의 근본적인 것은 초기 스포츠의학의 목표와 목적이 오늘날 스포츠 의학 규정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더 큰 지식의 결과가 아니다(Waddington, 1996). 그러나 초기연구가 실용적인 것과 이론적인 접근을 스포츠에 모두 접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스포츠의학과 도핑

1) 스포츠 의학의 형태

일반 스포츠 부상과 전문 태권도선수들의 행동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한 시점에 작용하는 스포츠 의학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9세

기 말엽 스포츠 의학에서 유래된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신체이다(Hoberman, 1992). 전반적인 과학적 탐구의 일부가 되는 질문에 답하는 형태의 초기 조사에 해당하므로 광역의 의미에서 이는 스포츠 과학으로 용어 정리가 될 수 있다. 연구 분야는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해부학이 포함되며, 근간에는 스포츠 의학뿐만 아니라 현대 스포츠 과학의 하위학문의 다양한 형태로서 고려되고 있다.

실용 스포츠 의학은 두 가지 발달 방법이 있다. 첫째는 부상의 치료 개선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경기실적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실용 스포츠 의학을 형성하는 치료 기술의 발전은 이론적인 스포츠 의학의 과학적 진보의 결과이며 이에는 두 가지 형태, 즉 치료와 예방의 형태가 있다.

부상 치료의 성공적인 시도와 검사 방법은 실제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물론 이는 부분적으로는 운동선수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일반인에게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사라 하더라도 초보 의료인이 많은 까닭에 새로운 기술과 치료 기법 적용에 느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식단 보충 및 좀 더 기술적으로 정당화된 연습 체제와 같은 소비자 위주의 실용 스포츠는 스포츠 의학 팀의 다양한 일원들에 의해 실천되어 지는데 이 또한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좀 더 이론적 차원에서 스포츠 의학의 발달을 연구함으로써 의학 지식의 사회적 보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스포츠클럽의 의료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현대 실용 스포츠 의학이 질병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이것이 스포츠 환경 습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할 것이다.

사회 과학자들이 스포츠에 대한 상업성이나 매체의 영향의 중요성에는 재빨리 인식하면서 스포츠 의학의 진화 연구에는 오히려 왜 그리 태만한지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 의학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글들은 상업적인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글들은 단지 건강한 삶에 대한 서구의 요구에 부응한 시장 중심의 추구의 결과로 나왔을 뿐이다. 이론적인 스포츠 의학의 진화를 연구함으로써 결국에는 경기실적을 향상시키게 되는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며 부상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개업의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리들을 훨씬 더 분명하게 상업적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스포츠 의학이 계속 개발되자 운동 생리학, 생체 역학 및 스포츠 심리학과 같은 관련 학문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19세기 후반 관련 학문들이 스포츠에 대한 큰 관심을 향하여 개발되었던 초기의 발달과는 대조적이다(Park, 1992). 이는 서구 사회가 더 큰 세상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의학의 힘의 예시로 볼 수 있다.

의학이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어서야 관련 학문들이 ‘학문’ 외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과거에는 선수들이 고립되어 종종 훈련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엘리트들은 스포츠 의학 개업의를 포함한 여러 부수적인 자문단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은 엘리트 선수들이 실적 향상을 위해 좀 더 예민한 의학적 지원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었다. 의학화가 서구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치와 선수들은 실적 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다주는 의학적 지원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신념이 팽배하다(Sperryn, 1983). 스포츠맨들이 부정한 물질 사용으로 실적향상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한, 이러한 맥락에서 실용 스포츠 의학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개발

스포츠 의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현대 서적들은 적어도 한 소논문 또는 한 장이 실적 향상 약물의 장점과 유혹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Medico-legal Hazards of Rugby Union(1992)라는 제목의 논문집에서 D.W. Payen은 이 주제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한 장에서는 선수들의 관점에서 다른 장에서는 의사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불법적인 약물 사용이 1980년대 후반에만 전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할지라도(Todd, 1987, 1992), 캐나다 육상 선수 벤 존슨이 서울 올림픽 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1988년의 스포츠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수년간 동구권 국가들은 부분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포함한 연대 훈련을 실시하였고 세계 스포츠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스포츠와 공산주의에 관련한 책에서 Riorda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약물 복용은 상부에서 조직되었으며 스포츠 의학 설립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몬트리올(1976)과 서울(1988) 올림픽 때 소비에트 팀은 소련 선수들이 마지막 순간에서 정부가 개입하였다.

소비에트 시스템에서 특이한 점은 정부가 조직을 하였다는 것이다. 벤 존슨은 개인 의사의 도움과 격려로 약물을 복용하였지만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기구는 그러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았다(Dubin, 1990). 이런 관점에서 소비에트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동구권에서의 약물 전쟁에서 문제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다. 약물 사용과 연루되는 위험의 관점에서 Benjamin(1992)은 스테로이드 사용을 확실히 반대하는 사례를 주장하며 실적은 향상되지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은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하며 암과 여타의 질병에 훨씬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약물 사용을 장려하지 않는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이전의 동구권에만 결코 국한되어 있지 않다(벤 존슨의 사례가 설명하듯이).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학의 활용은 국내 및 국제적인 성공을 성취하는 스포츠계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거대한 보상의 결과이다. 스포츠의 성공이 국가의 정치적 문제에 상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실적이들이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한 물질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관들은 실적 향상 물질을 금지하였지만 보조 식품 크레아틴과 같은 물질은 사용 승인을 하고 있다.

3) 스테로이드 크레아틴 재 포장

불만한 거리로서 스포츠가 돈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때문에, 스포츠 실적 향상 욕구는 부정한 약물과 같은 방식으로 실적을 향상시키는 합법적 물질

개발을 이끌었다. 이는 스포츠 의학의 이론 및 실용적 분야들이 실적향상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와 위험은 처방되지 않은 채 실적 향상을 시키는데 스테로이드의 이점이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농구에서는 미국의 NBA가 이러한 물질 사용을 금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약물은 체력과 스피드에서 엄청난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의 이점을 그대로 얻기 위해 엘리트 육상 선수들과 럭비 선수들은 똑같이 크레아틴과 같은 합법적인 보조 식품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크레아틴은 이것이 활용되는 방법에 있어서 신진대사의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이점이 있으며 스포츠계 사람들이 실행하는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lsby, 1995). 이 제품은 IOC 의학 위원회가 염두에 두기 이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소수의 선수들이 사용했던 것이다. 보조 식품의 보편적 사용은 1부 리그 웨일즈 럭비 선수들의 약 75%가 여러 형태 중 하나의 물질을 복용할 정도로 급속도로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럭비 서클과 운동선수들 모두가 이 보조제 사용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그들의 실적이 이 물질 때문에 가치가 하락시키며 심한 경련을 유발한다는 이전 사용자들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IOC가 이제 그 물질 사용을 합법적으로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이 물질의 사용 결과가 신진대사적 스테로이드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 부작용이 금지된 물질의 부작용과 유사하지 않겠는가? 거슬러 가보면 과다 사용의 장기적 건강 관련 문제를 조명할 수 있는 크레아틴 장기 사용에 대한 연구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한 연구가 실행 중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혈액 도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취해진 동일한 결과로 우리가 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Waddington(1996)에 의하면, 혈액 도핑은 ‘약물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혈액을 저장시켰다가 후에 선수에게 재 주입시키는 것으로 어떤 선수들로부터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이다.’ 혈액을 신체에서 제거하여 신체 내에 있는 산소 공급에 아주 중요한 적혈구를 신체가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한다. 신체가 적혈구를 대체한 뒤(현혈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발생하

는 동일한 방식으로), 수개월 전에 제거된 적혈구를 시합전에 대체시키면 선수에게 산소 흡수 능력을 크게 만들어 실적을 향상시키게 된다.

혈액 도핑은 사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미국의 사이클 팀이 대회를 석권한 이후에 비로소 불법적이 되었다(Waddington, 2001). 1984년 올림픽 때의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신진대사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자격 박탈되기 전 10,0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핀란드의 장거리 육상 선수가 자신이 불법적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동안 도핑의 목적으로 혈액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시스템이 오염되었음을 시인하였던 것이다.

표 1. 스포츠 약물복용과 관련된 기사

일 자	내 용	출 처
2014.07.03	스포츠, 도핑, 그리고 유네스코(총회 통해 반도핑, 협약 마련, 선수 생명보호 길 열어)	http://blog.naver.com
2015.01.05	도핑 규정위반 선수에 대한 징계절차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
2015.01.06	이용대 선수와 김지현 선수의 도핑문제	http://blog.naver.com
2015.01.27	박태환 선수의 도핑 문제	http://blog.naver.com
2015.01.28	이용대 선수와 박태환 선수	http://blog.naver.com
2015.01.29	유사사례에 비추어 본 박태환 선수의 구제 가능성	http://blog.naver.com
2015.01.30	박태환 도핑 파문과 각종 의혹제기에 대한 우려	http://blog.naver.com
2015.02.09	스포츠 유명무죄, 무명유죄	http://blog.naver.com
2015.03.24	응답하라,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	http://blog.naver.com
2015.06.04	무단칼로 찌르면 더 아프다.	http://blog.naver.com
2015.06.12	강수일 선수의 도핑파문으로 살펴본 도핑징계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
2015.06.15	프로스포츠 도핑 징계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
2015.06.17	쇠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만 강하다.	http://blog.naver.com
2015.06.18	프로선수 도핑 의무화 법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
2015.06.25	최진행 선수 사례에 비추어 본 도핑징계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
2015.06.25	도핑! 금지약물! 반가워요!! 슈퍼히어로입니다!!	http://blog.naver.com
2016.03.28	약물도핑은 옛말, 뇌에 전기 자극해 경기력 향상	MBC
2017.05.11	약물, 기술 도핑 논란, 세계육상 수장의 생각은?	중앙일보
2017.07.05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자육상계 ‘발칵’	조선일보
2017.07.20	놀이와 범죄 사이...내 안의 또 다른 나 ‘자케’	조선일보
2017.07.21	‘유전자 결정론’ 뒤집을 수 없다면..	동아일보

4) 스포츠의학의 대중적 이용

스포츠 의학 영역에서 발생한 두드러진 변화는 대중이 전문 클리닉에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관련 부상의 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Gwyther, 1995). 부상의 수가 증가하는 것 외에 그 정도도 심해질 수 있다. 적극적인 생활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형태가 나오는 스포츠 사람들처럼 생체 역학적으로 건전하게 될 것 같지 않다. 스포츠 의학은 과거에는 단순한 정통 치료 행위로서 가능하였지만, 사회가 건강한 신체를 강조함에 따라 초점은 예방 의학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태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객에 대한 생필품의 흐름이 확장 되자 소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제품의 마케팅에 사용되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여가 활동, 개인의 표현성 및 소비가 강조되자 신체는 쾌락위주의 행위의 장 및 문화에 있어서의 욕구로 출현하게 되고 그래서 신체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식하게 되었다(Turner, 1996). 이것은 다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생기는 사소한 고통과 부상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알게 되는 한 일반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도된다.

재정적인 보상이 엘리트 스포츠에서 지대하게 되자 선수들은 한계에 까지 자신들을 몰아가며 좀 더 생리학적으로 견고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다해도 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엘리트들에게 부상은 더 다반사인고로 스타 선수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예방이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광고는 대중으로 하여금 제품이 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와 같이 보이도록 하는 목표를 기본으로 한다.

소비자로서의 대중은 건강한 생활양식을 사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상이 발생할 때 그들은 스포츠 의학 클리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구하려 한다. 유사하게 직업적인 럭비 클럽 또는 그들의 선수들을 돌보기 위해치료 팀을 고용한다. 미래에는 클럽과 대중 모두가 스포츠 의료 팀을 고용하기 때문에 선수 자신들의 건강이나 관심은 과거 보다는 덜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 영국 스

포츠 의학 저널의 편집장인 Macauley(1997)은 최근 이러한 질문을 고려하여 ‘이 고도의 경쟁적인 스포츠 시장에서 의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독자성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치료와 재활, 주사와 수술에 대한 압력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코칭 스태프가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임 받고 있는 훌륭한 실적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진료가 클럽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여전히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쉽게 교체될 수 있는 단기 계약의 국가 직업선수는 컨디션이 좋기 전에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강요될 수 있으므로 건강의 저해요인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

IV. 결론

스포츠화된 태권도와 관련된 의학구조와 조직은 방법적인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속에서 엘리트 태권도선수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치료를 받는다. 오늘날 상해와 관련한 의학적 치료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의 확립을 위해 현대 스포츠 의학의 탐구는 필수적이다. 신체조직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오랫동안 추측되어왔다. 그리고 운동심장과 체육활동과 관련한 기초적인 이해에 초점을 바탕으로 스포츠의학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의학적 인류학, 스포츠 활동을 강화시키는 물질의 수행과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행의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스포츠의학의 사회적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 최근까지 늘어나고 있다(Berryman and Park 1992; Hoberman 1992; Waddington 1996, 2001). 이러한 경향은 스포츠화된 태권도와 의학이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상해치료의 중요한 고려점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태권도 참여에서 오는 상해의 육체적 측면을 치료하는 것에 상업적 관심을 갖는다(Park, 1992a). 오늘날 의학전문가들의 관

심은 여전히 이러한 상업적 사교성에 있다. 그러나 태권도 경기 참여가 항상 건강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Waddington, 2001). 그리고 참여자가 더 경쟁적이게 됨으로써,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또한 커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World Medical Association(WMA)은 1981년이래로 스포츠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의학전문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다.(Grayson, 1999). 지금까지 증가되어온 프로페셔널리즘을 받아들이는 스포츠관련 의학 치료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윤리적 스포츠 의술을 위한 세계적인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건강연구에서 발견되어지는 초점의 변화는 강조된 라이프스타일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지식을 준다.(Nettleton, 1995). 사실, 태권도선수로서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스포츠 성공의 추고로부터 스포츠 행위를 강화로의 이동은 라이프스타일의 우선권에 변화로써 확실해질 수 있다. 한 시대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지배적인 모든 스포츠의 패러다임이다. 단순 스포츠 트레이닝은 충분치 않다. 태권도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는 반드시 스포츠적인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특별 트레이닝 수행의 준비를 위해 식이요법과 피트니스를 병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더 강한 준비로 유보된 상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Nixon, 1993). 그리고 태권도의 근본목적인 건강함 추구에 관한 이점과 오랜 기간 심각한 병 사이에 존재하는 애매모호한 형태는 스포츠 의술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수단을 수반한다. 즉, 당신은 같은 상해를 반복적으로 입는 태권도선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 것인가? 당신의 환자(부상당한 부분) 혹은 당신의 시술에 보답하는 구단에 책임감 있는 의학 전문가인가? 이러한 것들은 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다. Roderick et al(2000)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상업주의로의 전환은 아마도 스포츠 의학과 관계에서 공생관계의 결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부상에 대한 관리가 경쟁적 상황에서 태권도경기에 참여하는 남녀 모두에게 성공과 실패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마도 ‘태권도스타’에게 있어서 부상은 태권도 경쟁의 장소로 관람 온 많은 관중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 의학적, 인류학적 그리고 사회윤리학

적 문화에서 소개되고 있다.

2017년 7월 5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여자육상계가 발칵 뒤집혔다. 최근 영국의 한 스포츠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 하나가 지나 수십년간 육상계의 뜨거운 이슈였던 ‘성별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남성 호르몬이 높은 여자 선수들의 기록 향상 수치 중목으로는 해머던지기, 장대높이뛰기, 400m 허들, 400m, 800m 등으로 남성호르몬이 낮은 여자 선수들의 기록과 비교 분석되었다.

약물복용과 더불어 중독의 중요한 문제점은 놀이와 범죄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e-스포츠와 같은 온라인 게임 역시 중독의 또 다른 유형으로 “내 안의 또 다른 나 ‘자캐(자작 캐릭터)’” 라는 10대들의 ‘自作 캐릭터 놀이’로 인해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관련 논란과 아이돌, 만화 등 다양한 주제 설정으로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 놀이를 하는 등 “현실, 환상 구분 못 하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무조건 제지보다 양지로 이끌어야” 한다는 논의도 제시되고 있다(조선일보, 2017).

위와 같은 논의에서 스포츠 의학은 일상적으로 인류의 주변에 있는 사회적 영향에 면제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스포츠 의학의 발달은 두 가지 주요한 사회적 변화 과정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의학의 세계 내에서 다른 하나는 스포츠 세계 내에 존재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경기장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의 증가(이는 때로 재정적 수익으로 연결됨)와 결합하여 생명의 의학화는 스포츠 의학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엘리트 태권도선수들은 스포츠 의학 개업의의 고객이며 그들의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 의학의 영향은 훨씬 더 심오하고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 중세 또는 르네상스와 같은 문화에 있어서 도덕적 사유와 행위가 훗날 “덕(virtue)”으로 번역된 아레테(arete)라는 낱말은 호머의 서사시에서 모든 종류의 탁월성에 대해 사용되었다. 빨리 달리는 경주자는 그의 발의 아레테를 나타내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아레테에 있어서 운동선수로서, 전사로서 그리고 정신에 있어서 탁월성을 나타낸다. 덕

또는 탁월성에 관한 이 개념은 첫눈에 보기보다 우리에게 훨씬 낯설다. 인간의 탁월성에 관한 이 개념에서 육체적 힘이 차지하게 될 핵심적 지위를 인식 하거나, 또는 용기가 핵심적 덕들 중의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덕이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fränkel, 1973). 태권도 사회에서 나타나는 덕 개념에 낯설은 탁월성의 개념을 부추기는 도핑 즉, 약물 복용이나 유전자 결정론, 미국 여자육상선수 낙태 고백, 약물, 기술도핑 논란 등 용기(경쟁)의 개념이 영웅(승리지상주의)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이와 유사한 덕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애, 운명, 죽음과 같은 태권도 사회에서 붙어 지는 문제 개념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도핑의 새로운 형태들은 이미 우리들의 스포츠 사회 속 즉, 태권도 사회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 결정론은 약물 복용과 유전적 탁월성의 인정론적 대안으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명분아래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민의 유전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종과의 성적 결합(혼혈)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아직까지 태권도인이 인식하고 있는 도핑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서 선택과 깨달음의 양면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태권도 윤리, 스포츠의학 그리고 도핑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태권도 윤리와 스포츠의학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핑의 통합적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질적인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사회적 현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재전략과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평판이나 부상, 자기관리인식의 부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어려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학덕(2005). **태권도 선수들의 몸을 통한 윤리인식 체현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선일보(2017). **놀이와 범죄 사이... 내 안의 또 다른 나 ‘자캐’**. 제30022호 A 21면.
- 조선일보(2017). **남성호르몬 때문에... 여자육상계 ‘발각’**. 제30009호 A 26면.
- Benjamin, I.S. (1992). ‘*The Case against Anabolic Steroids*’, in S.D.W. Payne(ed) *Medico-legal Hazards of Rugby Union*. Oxford: Blackwell Special Projects
- Berryman, J.W and Park, R.J. (1992). *Sport and Exercise Science: Essays in the History of Sports Medicine*,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Camus, Albert. (1960). *The Myth of Sisyphus*, trans. J. O’ Brien, New York.
- Dubin, C. (1990). *Commission of Inquiry into the Use of Drugs and Banned Practices Intended to Increase Athletic Performance*. Canadian Government Publishing Centre.
- Frank, Leahy. (1951). *Defensive Football*. New York: Prentice-Hall, Inc., 198.
- Friedrich, A. Hayek. (1944). *The Road to Serf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3.
- Grayson, E. (1999). *Ethics, Injuries and the Law in Sports Medicine*.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 Gwyther, M. (1995). ‘*Tackling Injury*’, The Sunday Times: Style, 28 May.
- Henry, S. Commager (1944). *In Scholastic*, XLIV (May 8-13), 7.
- Hermann fränkel. (1973). *Early Greek Poetry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M. Hadas and J. Willis.
- Hoberman, J. (1992). *Mortal Engines*. New York: Free Press.
- James, W. Keating. (1964). ‘*Sportsmanship as moral category*’, *Ethic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LXXV:

25-35.

- Klaus, V. (2001). *Ethics in Sport. Sportsmanship as Moral Category*. pp. 1-7.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uman Kinetics.
- Literary Digest (1926). 'A Sportsmanship Brotherhood', *LXXXVIII* (March 27),
60-61.
- Lyman, B. (1947). *Science and Freedo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30.
- Macauley, D. (1997). 'Will Money Corrupt Sports Medicin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31:1.
- Monaghan, L. (2001). *Bodybuilding, Drugs and Risk*. London: Routledge.
- Nettleton, S. (1995). *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Oxford: Polity Press.
- Nixon, H.L. (1989). 'Reconsidering Obligatory Running and Anorexia Nervosa as
Gender Related Problems of Identity and Role Adjustment',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13. 14-24.
- Nixon, H.L. (1993). 'Accepting the Risks of Pain and Injury in Sport: Mediated
Cultural Influences on Playing Hurt', *Sociology of Sport Journal*, 10,
183-196.
- Park, R.J. (1992). 'Athletes and Their Training in Britain and America,
1800-1914', in J.W. Berryman and R.J. Park (eds) *Sport and Exercise
Science: Essays in the History of Sports Medicine*.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oderick et al. (2000). 'Playing Hurt: Managing Injuries in English Professional
Football',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5(2),
165-180.
- Ryan, A.J. (1989). *Sports Medicine in the World Today*, in A.J. Ryan and F.L.
Allman (eds) *Sports Medicin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perryn, P. N. (1983). *Sports Medicine*. London: Butterworth.
- Todd, T. (1987). 'Anabolic Steroids: The Gremlin of Sport', *Journal of Sport
History*, 14, 87-107.

- Todd, T. (1992). *'Anabolic Steroids and Sport'*. in J. Berryman, and R. Park (eds) Sport and Exercise Science: Essays in the History of Sports Medicine.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urner, B.S. (1996). *The Body and Society*, 2nd edn. London: Sage.
- Waddington, I. (1996). 'The Development of Sports Medicine', *Sociology of Sport Journal*, 13, 176-196.
- Waddington, I., Roderick, M. and Naik, R. (2001). 'Methods of Appointment and Qualifications of Club Doctors and Physiotherapists in English Professional Football: Some Problems and Issues',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35, 48-53.
- Walk, S. (1997). 'Peers in Pain: The Experience of Student Athletic Trainers', *Sociology of Sport Journal*, 14(1), 22-56.
- Welsby, B. (1995). *Creatine: Food for Prolonged Energy*. Peterborough, UK: Be-Well Nutritional Products.
- Young, K. (1993). 'Violence, Risk, and Liability in Male Sports Culture', *Sociology of Sport Journal*, 10, 373-396.

ABSTRACT

Taekwondo Ethic, Sports Medicine and Doping

Kim, Hak-Duk(Dong-Eui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ise of problems which have occurred in sports medicine and doping, as well as providing a solution concerning issues in modern sport society by using the interpretive paradigm of sports ethics related to the body, equipping those involved in taekwondo proper knowledge and upholding a virtuous mindset.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actice taekwondo ethics is for taekwondo athletes to voluntarily think about their own performance and meaningfulness through their actions. The uncertainty of sports however, add to its depth and creates unethical and non-normative forms. In conclusion, the focus has grown to attitude, pose, readiness, and other's participants goals and attitudes toward doing taekwondo, not in the competition itself, the physicality, or relations to the ru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elements of human desires are making negative casts and create an interpretation on sports doping.

keyword : Taekwondo Ethics, Sports Medicine, Doping, Body

논문투고일 : 2017.09.30.

심사일 : 2017.10.17.

심사완료일 : 2017.10.31.

한국무예학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432호

Tel. **031-201-3763** Fax. **031-201-3743** E-mail. **yudong78@naver.com**

#432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ong-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104, Korea

Tel. **+82-31-201-3763** Tax. **+82-31-201-3743** E-mail. **yudong78@naver.com**



www.kosoma.org